

KIA 부활 최희섭에 달렸다

결정타 부족 역전패 허용... 지난주 안방서 1승3패
하위팀 롯데·넥센과 원정 6연전... 승수쌓기 호기



넥센과 경기를 치른다. 하위권팀간의 대결이지 만 근소한 차이로 자리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선발·불펜·타선 삼박자가 엇갈리면서 위태로운 4월을 보내고 있는 KIA에게 이번 주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한 주다.

호랑이가 '잔인한 4월' 칼질길에 섰다. 지난주 안방에서 1승3패의 성적을 거두는데 그친 KIA 타이거즈가 사직·목동으로의 원정 6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눈과 비로 두산과 LG와의 대결에서 각각 1경기씩을 쉬었던 KIA는 1승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LG에 밀려 5위로 내려앉았다. 이번주 KIA는 공동 6위 롯데, 최하위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13	5	0	0.722	5승
2	두산	12	4	1	0.706	1패
3	삼성	10	9	0	0.526	5패
4	LG	8	8	1	0.471	4승
5	KIA	7	10	0	0.412	2패
6	롯데	7	11	0	0.389	1승
6	한화	7	11	0	0.389	1패
8	넥센	6	12	0	0.333	1승

릿심 부족으로 경기 막바지 빠아픈 반격을 당했던 KIA에게 최희섭의 부활이 절실하다.

최희섭은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시즌 초반의 준비를 했던 최희섭이지만 스트라이크존에 발이 묶였다. 수싸움이 한 박자 빠르게 전개되면서 최희섭의 방망이가 성급하게 움직였다.

타격 부진에 대한 최희섭 본인도 조병현 감독의 처방은 '시간'이었다.

출 6연전이 잡혀있었던 지난주 최희섭은 팀의 기본 훈련 외에도 경기전 실내 연습장에서 개인훈련을 병행하면서 타격감 살리기에 속도를 냈었다.

선발진을 앞세운 지키는 야구, 최희섭을 내세운 공격의 야구가 4위권 재진입을 위한 KIA의 숙제다.



추신수가 19일(한국시각) 오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2회 개인 통산 두번째 만루홈런을 터뜨린 후 홈에 들어와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짜릿한 만루포' 최고 해결사

시카고전 2안타 5타점... 2경기 연속 결승타

'추추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만루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한꺼번에 타점 5개를 쓸어들였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출장, 홈런 포함 3타수2안타를 때리고 5타점을 올리는 불꽃타를 휘둘렀다. 전날 열린 결승 2루타를 터뜨렸던 추신수는 이날도 첫 타석부터 득점타를 때렸고 팀이 7-4로 이기면서 2경기 연속 결승타를 때린 선수로 기록됐다.

0-0이던 1회 무사 1,2루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화이트삭스 오른팔 개빈 플로이드의 빠른 볼을 잡아당겨 우전 적시타를 때렸다. 2루 주자 아스트루발 카브레라가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클리블랜드는 계속된 2사 만루에서 마크 그루질라네의 2타점 안타로 3-0으로 앞서갔다. 2회 무사 만루의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이번에는 플로이드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화끈하게 퍼올려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그랜드 슬램을 폭발시켰다. 타점도 12개로 불어 '인디언 부대' 해결사로 입지를 구축했다. /연합뉴스

구였다. 시즌 4번째 대표. 2005년 바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고 보스턴과 대결한 2006년 8월4일 조시 베크에게 첫 그랜드슬램을 터뜨린 뒤 이날 통산 두 번째로 짜릿한 손맛을 봤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맹타로 2회 7-0으로 말뚝잡지 달아나 승부를 갈랐다. 추신수는 4회에는 볼넷을 끌었고 7회에는 잘 맞은 타구가 2루수 호수비에 걸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50(40타수14안타)으로 올랐다. 한때 1할대에 머물렀지만 12일 디트로이트와 경기부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고 이 기간 4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을 때리는 절정의 타격각각을 보였다. 타점도 12개로 불어 '인디언 부대' 해결사로 입지를 구축했다. /연합뉴스

KIA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선수 시력 맞춰 보세요'

26일까지 10개팀 열전

밝은안과21, KIA 팬 이벤트

제 4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KIA 타이거즈가 주최하고 광주야구협회가 주관하며 10개 중학교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대회는 5개팀씩 2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승률에 따라 조별 1·2위 팀을 가리게 된다. 조별 1·2위 팀 총 4개팀이 크로스조 준결승 대전을 펼

친 후 승리팀 2개팀이 최후의 승자를 놓고 다투게 된다. 총 경기수는 23경기. 대회 우승팀과 2·3위 팀 등 4개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주어진다. 참가 10개 팀에게는 광고배트와 알루미늄 배트 1타수씩과 시합구 10타 등 야구 용품이 참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 시상자에게는 글러브와 야구화 등 상품이 수여된다. 대회는 20일 오전 A조 총장중과 진흥중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하며 하루 4경기씩 진행된다. 25일에는 A조 1위와 B조 2위, A조 2위와 B조 1위가 각각 준결승전을 갖는다. 대망의 결승전은 26일 치러진다.

이벤트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당첨자 10명에게는 광주밝은안과21에서 제공하는 선수단 후드티와 눈 종합검진권이 증정된다. /김여우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가 구단 지정병원인 광주 밝은안과21과 함께 '선수 시력 맞추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구단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김동재 코치와 이용규 등 7명의 선수단 시력을 가감해 나온 숫자의 배수를 가진 선수를 맞이하는 것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벤트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당첨자 10명에게는 광주밝은안과21에서 제공하는 선수단 후드티와 눈 종합검진권이 증정된다.

최경주 막판 부진... 공동 41위 추락

PGA 버라이즌... 짐 퓨릭 우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코리안 브라더스가 버라이즌 헤리티지 마지막날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재미교포 이상욱(27·타이틀리스트)은 19일(한국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 아일랜드의 허버타운클럽장(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3개를 묶어 1오버와 72타를 쳤다. 함께 3언더와 281타를 적어낸 이상욱은 전날보다 2개타 올라선 공동 35위로 대회를 마쳤다.

만행 최경주(40)도 마지막날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 5개를 쏟아내 함께 2언더와 282타로 공동 41위에 머물렀다. 특히 최경주는 대회 첫날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스코어를 지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아마추어 초청선수로 출전한 안병훈(19)은 3타를 잃고 공동 59위(1오버와 285타)에 올랐다. 우승컵은 '8자 스윙' 짐 퓨릭(미국)에게 돌아갔다. 퓨릭은 13언더와 271타를 쳐 브라이언 데이비스(잉글랜드)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 번째홀에서 파를 지켜 시즌 두번째이자 통산 15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연합뉴스

모비스 유재학 감독 재계약

5년간 20억... 역대 최고대우

유재학(47) 울산 모비스 감독이 역대 프로농구 지도자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고 모비스에 남기로 했다.

모비스는 다음 달 31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유 감독과 5년간 연봉 4억원, 총액 20억원에 재계약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비스에 따르면 유 감독은 프로농구 감독 사상 최초로 연봉 4억원 고지에 올랐고 처음으로 4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 지도자가 됐다.

유 감독은 2004년 3월 모비스 지휘봉을 잡고 6년 동안 네 차례 정규시즌 우승과 두 차례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영 / 학 / 안 / 내

영화가네가있다

메가박스

- 1관 타이탄 (124)
- 2관 반가운 살인자 (154)
- 3관 타이탄 (124)/프로포즈데이 (124)
- 4관 블라인드사이드 (124)
- 5관 (3D)타이탄 (124)
- 6관 바운티헌터 (154)
- 7관 일라이 (154)
- 8관 육혈포강도단(154)/프로포즈데이(124)
- 9관 베스트셀러 (154)

• 호남주차단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외곽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 연면역국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 1관 반가운 살인자 (154)
- 2관 육혈포강도단 (154)/집 나온 남자들(154)
- 3관 프로포즈데이 (124)/크레이지 (124)
- 4관 일라이 (154)
- 5관 작은연못 (154)
- 6관 (3D)타이탄 (124)
- 7관 베스트셀러 (154)
- 8관 바운티헌터 (154)
- 9관 타이탄 (124)
- 10관 타이탄 (12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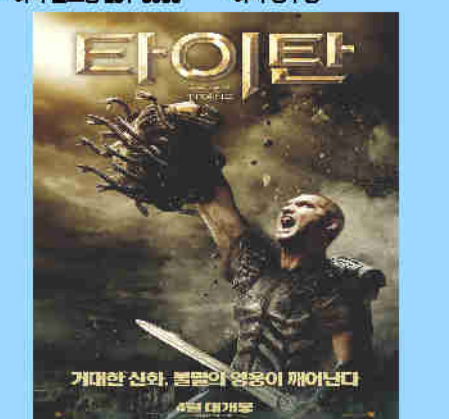


1588-7941 상무점연결 통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 1관 레이징 피닉스(154)/롤링 인 리브(154)
- 2관 그린 존(154)
- 3관 솔로몬 케인 (184)
- 4관 의형제 (154)
- 5관 비밀에 (184)
-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세)
- 7관 타이탄 (124)
- 8관 타이탄 (124)
- 9관 육혈포 강도단 (154)
- 10관 폭풍전야(184)

• 2000년 부문 주짓수(3시간) • 365 매일 심야
• 이틀 통산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스포츠점 282-5767 • 해미 병점점 282-0825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hema.co.kr / 1586-9120
전대무운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 1관 일라이(154)
- 2관 베스트셀러 (154)
- 3관 타이탄 (124)
- 4관 크레이지(154)/ 프로포즈데이(124)
육혈포 강도단 (154)
- 5관 반가운 살인자 (154)
- 6관 블라인드사이드 (124)
- 7관 (3D)타이탄 (124)

씨너스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통산사 할인혜택



씨너스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통산사 할인혜택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전초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 1관 타이탄 (124)
- 2관 베스트셀러 (154)
- 3관 작은연못 (154)
- 4관 일라이 (154)
- 5관 반가운 살인자 (154)
- 6관 집 나온 남자들(154)
육혈포 강도단 (154)

• 무료주차 3시간*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일장연 구내 고객에 한함



세무소 기점 •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 •
홍창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